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소...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7일 양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해외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정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쯔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지난 5일 서울에서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국이며, 7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김 국세청장은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협력장치를 더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역시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으며,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 국간 교역액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국세청장은 쯔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발효에 따른 세정협력 절차의 실질적 이행과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전자세정 교육을 실시하여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캄보디아 국세청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관세청, 수출입 빅데이터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찾아낸다"

관세청이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을 열고 수출입 빅데이터를 통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본격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들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이 구축한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데이터에 기반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및 불법 마약밀수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외부의 관세·무역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통 2년차인 올해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과 높은 분석 난이도 등으로 과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플랫폼상의 분석모델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및 우범 화물 적발 등 이번 수상사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관세청에는 하루 평균 약 260만톤의 수출입화물과 1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국경을 통과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번 경진대회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세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공공의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